

Cityscape

밋밋하고 텅그러니 놓여 있는 건물. 건조하게 반복되는 형태들
현대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까이 있는 공간이면서도
언제나 시각적 위압감으로 다가오는 풍경
그것이 이인미의 도시이다

액자 속의 거대한 물음 · 느낌 / 강선학

Abandoned plain building.
Repeated monotonous shapes.
The most familiar place in the modern life
and the most coercive scene.
That is the Lee In-Mi's metropo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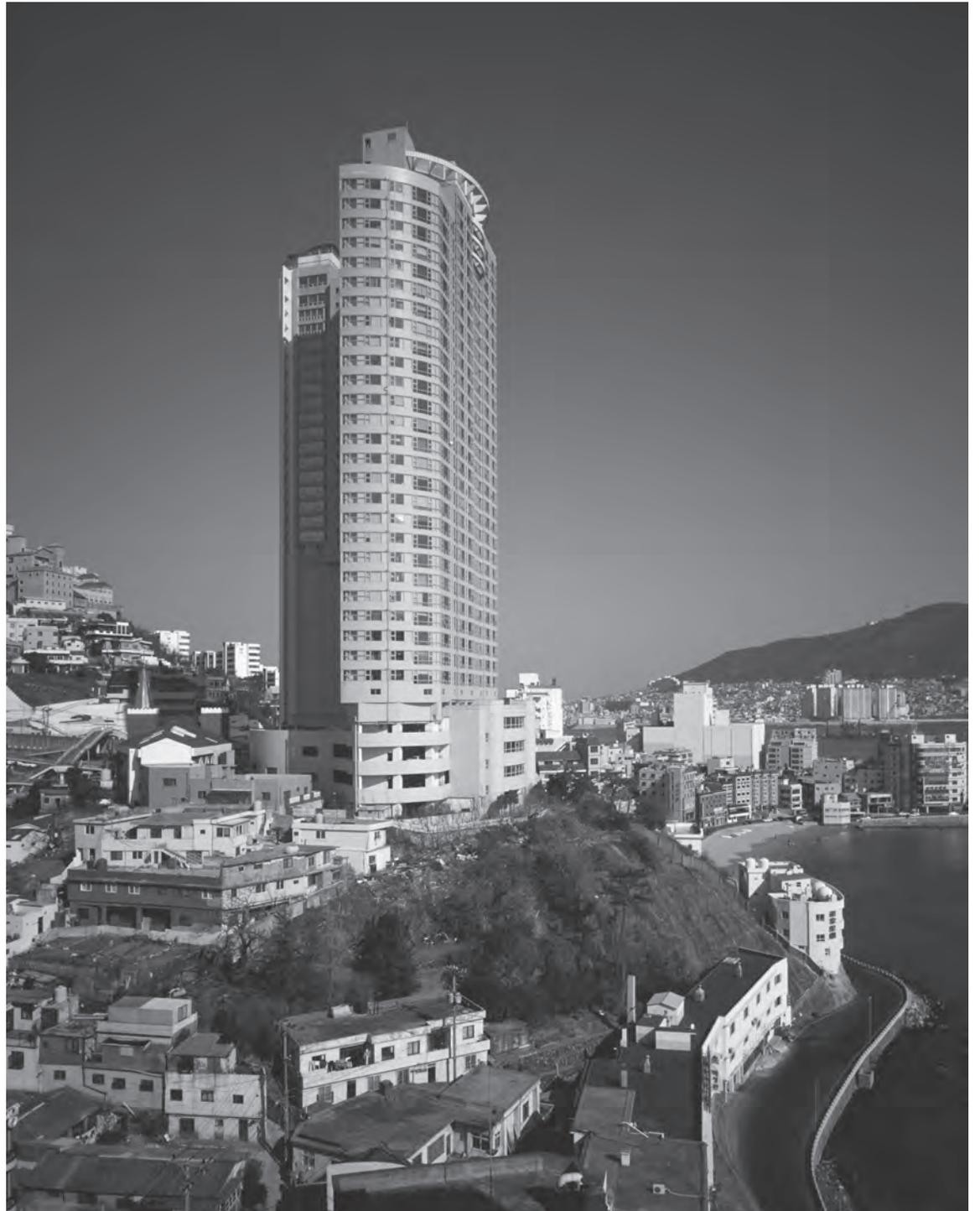
Huge question, feeling in the frame / Kang Seon-Hak



cityscape 01 | digitalprint | 140X110cm(1/5 ed)| Busan |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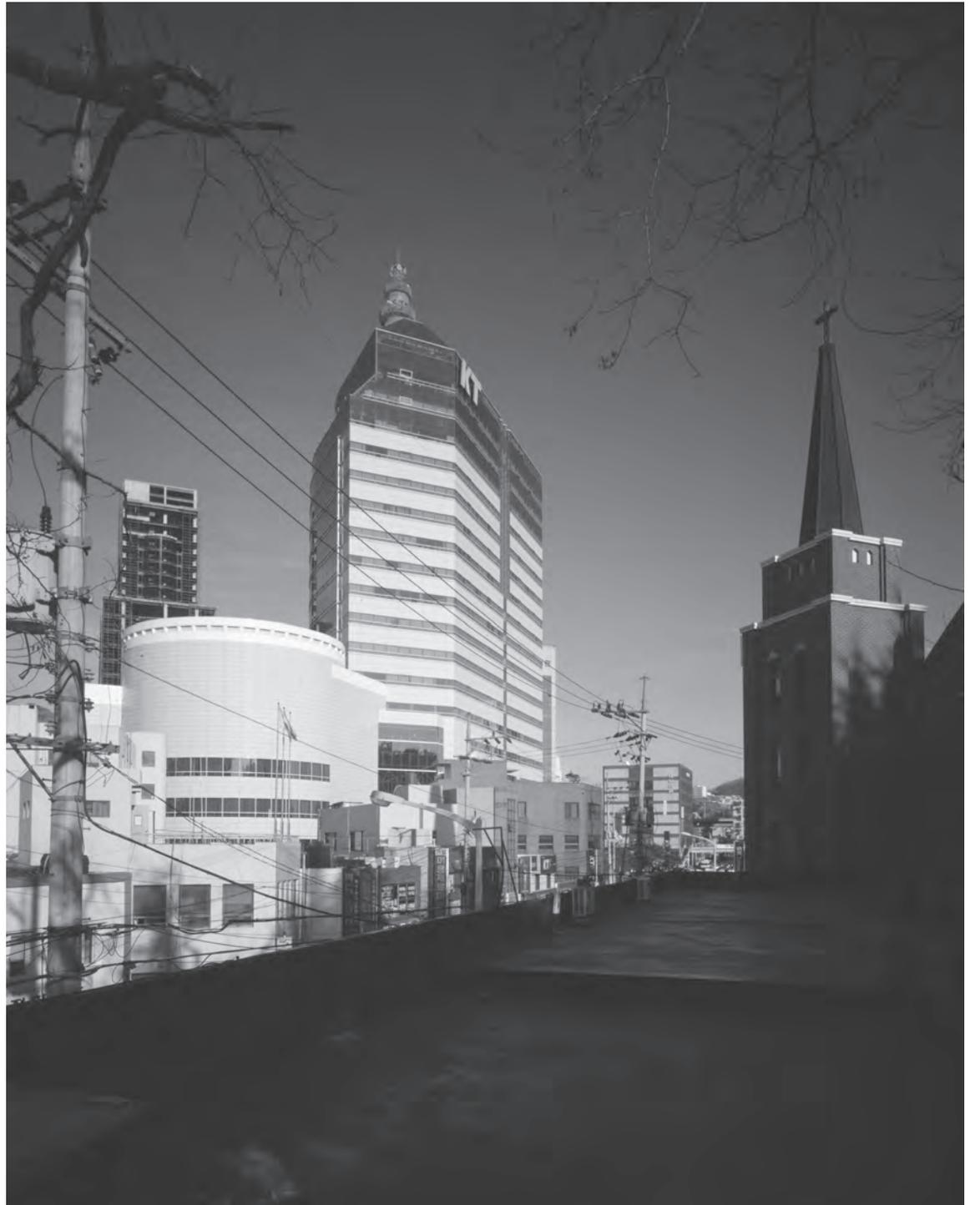


cityscape 05 | digitalprint | 140X110cm(1/5 ed) | Busan | 2004





cityscape 04 | digitalprint | 140X110cm(1/5 ed) | Busan | 2004



cityscape 02 | digitalprint | 140X110cm(1/5 ed) | Busan | 2004



cityscape 2008 | digitalprint | 140X110cm(1/5 ed) | Daegu | 2008

오랫동안 부산의 건축적 풍경의 변화를 기록해 온 이인미의 <시티스케이프> 연작은 초고층 복합주거 건축물과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부산의 풍경을 담는다. 하나의 장면 속에 바다, 오래된 집, 고층 건물의 세 층위가 쌓이면서 서로 다른 시간대와 욕망이 거침없이 드러난다. 이질적인 요소들의 뒤섞여 마치 합성처럼 보이는 이 사진은 비현실적인 현실 도시 부산의 기록이다. <시티스케이프_범전동>은 하야리아 미군 부대가 머물렀던 장소이다. 100년 동안 부산 속의 미국 땅이었던 이 곳은 2000년 부산시민공원으로 바뀌었다. 작가가 12년 전 촬영하였을 때 아스팔트 위로 들풀이 자라던 곳은 이제 공원 주차장이 되었고, 그 너머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시티스케이프_영도>는 묘박지를 향해 서 있는 아파트를 담았다. 부산의 바다는 휴식의 바다와 산업의 바다로 나뉜다. 묘박지의 바다에는 배들이 정지해 있어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풍경을 만든다.

2022 부산비엔날레 / 김혜주 감독



Cityscape–Youngdo, Archival pigment print, 210X300cm, 2022, A.P. 1(ed 5)



Cityscape–Beomjeondong, Archival pigment print, 210X300cm, 2022, A.P. 1(ed 5)



Cityscape–Bujeondong, 150X100cm, 2022, A.P. 1(ed 5)



Cityscape–Songdo, 150X100cm, 2022, A.P. 1(ed 5)



Cityscape–Jwacheon area, 150X100cm, 2022, A.P. 1(ed 5)



Cityscape–Sujeongdong, 150X100cm, 2022, A.P. 1(ed 5)



Cityscape–Jwacheon–Beomil area, 150X100cm, 2022, A.P. 1(ed 5)



Cityscape–Jwacheon area, 150X100cm, 2022, A.P. 1(ed 5)

Anotherframe

Anotherframe에서 프레임은 작품 안에서 독립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늘을 발견하게 만드는 건물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 두 겹의 프레임은 단순히 중첩된 프레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건물과 하늘의 드라마를 담아내는 장면으로서의 바깥 프레임,

그리고 움직임과 정지, 안과 바깥, 나와 세상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 조선령

In 'Anotherframe' the frame is independent from photo.

We can find the sky from the shadow of the building.

But this two frame is not similar.

Both frame have different roles.

Photo's frame is for the story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sky.

And movement and still, inside and outside,

I and city's connection are made by another frame.

About Beauty/Cho Seon-Ryeong





anotherframe 01 | digitalprint | 100X140cm (3/5 ed)| Busan | 2006





anotherframe 07 | digitalprint | 1100X140cm(1/5 ed) | Busan | 2006





Hwamyongdong 01 | digitalprint | 100X140cm(2/5 ed) | Busan | 2008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도시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대곤 하지만
그들의 작품들은 대개 지나칠 만큼 주정적이고 주관적이다
작가의 해석이 객관적 대상에 너무 깊이
그리고 너무 많이 개입함으로써
대상 그 자체의 위상을 위반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이인미의 작품은, 과하다 여겨질 만큼 무심하다
그가 보여주는 도시는 매우 즉물적이고, 사람 냄새라곤 거의 없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찍힌 기록사진 속의 도시처럼
부산이라는 이 현실 공간이 저 멀리서 포착된다

내가 서 있는 그 곳 / 박훈하

Recently many people take some picture in the city,
but most of them is too subjective.
They overwhelm the subject by artist's opinion.
By comparison Lee In-Mi's work is remote.
The city shown by her is realistic and objective.
Busan is captured like documentary photo took a few decades ago.

The place where I stand/Park Hoon-Ha





Gwaebeop-dong03
digitalprint | 100X140cm(2/5 ed) Busan | 2008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더 이상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어둠 속에 버려진 생존의 두레박이거나,
어둠이 잘게 부서져 박명으로 빛나는 각진 생존의 터전, 바로 그것들이다.
그의 작품의 힘은, 해석의 힘을 과용하는 대신,
이렇듯,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으로 되돌아옴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질문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도시를 어디서 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곳 / 박훈하

The landscape of the city is not the thing
we should spot anymore.
We should see the place in the dark,
place shine with life, etc.
Instead using the subjectivity
her photo roll back us to the desperate time.
It makes spectator make question themselves.
“Where is the place I watch the city now.”

The place where I stand/Park Hoon-Ha



Dadedong02
digitalprint | 120X80cm(1/5 ed)
Busan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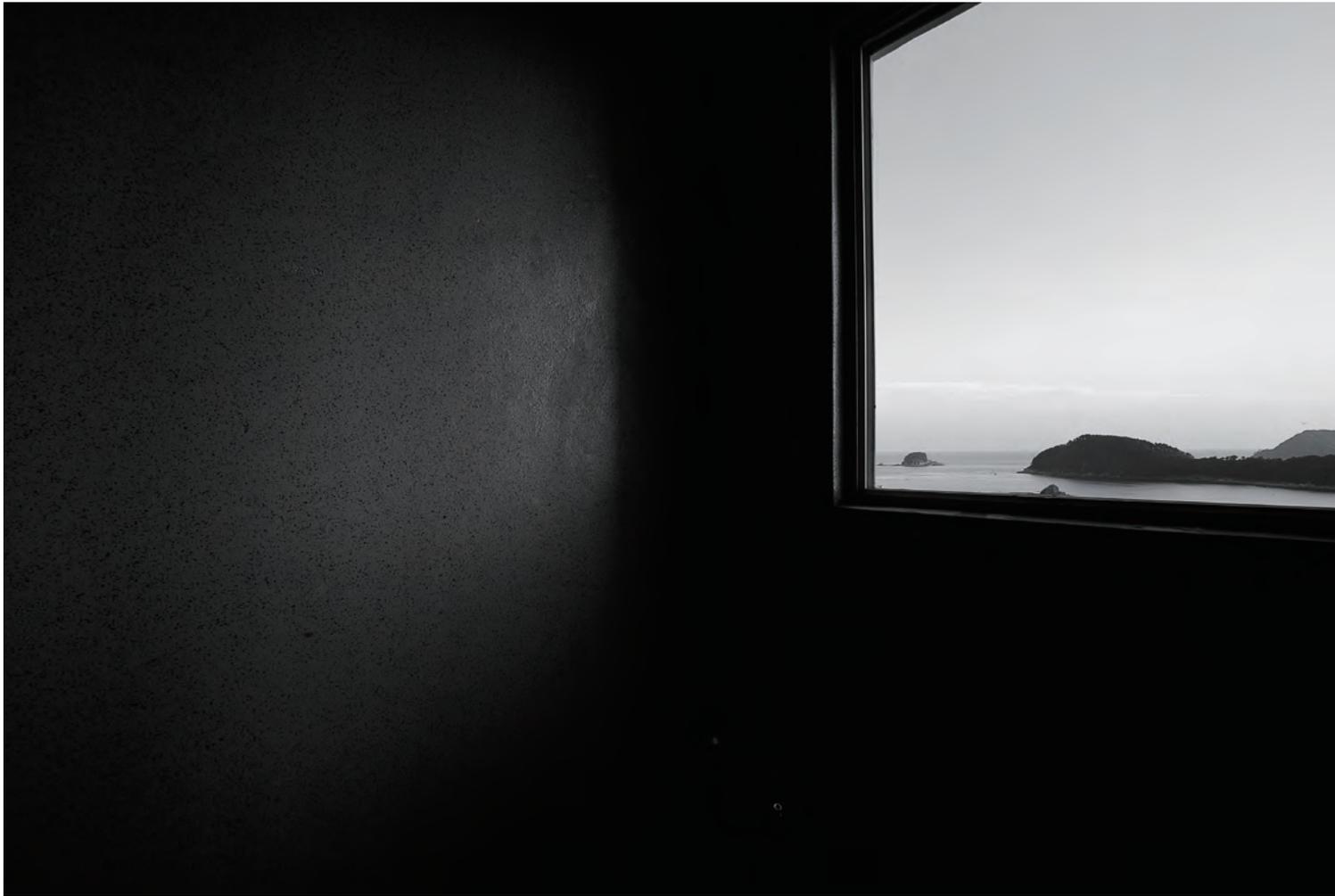
Dongsamdong02
digitalprint | 120X80cm(1/5 ed)
Busan | 2009





Dongsamdong01
digitalprint | 120X80cm(1/5 ed)
Busan | 2009







Return

Camp Hialeah

도시를 살고 있는 개개인의 일상과 역사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의 첨단화 속에서
시간의 흔적과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공존하는 공간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정 전체를 망각의 더께 속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기고 보다 / 이인미

People who live in the city have to live remote
with individuals history and daylife is reality.
But still there is the space people live together.
I think we have to conserve all these processes.

After Leaving/Lee In-Mi













return004-hialeah | digitalprint | 90X70cm(1/5 ed) | Busan | 2010



return006-hialeah | digitalprint | 90X70cm(1/5 ed) | Busan | 2010



Youngdo Bridge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너를 만남으로써 내가 있고,

지난 기억을 보존해 줄 장소를 통해 나는 세상의 무엇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는 지워질 영도다리에 대한

작은 조사(弔詞)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부재하는 존재로부터 부재의 형식을 생성해 냄으로써
영도다리를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도록 하는 생성의 기록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이냐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질문이 유효한 한 우린 결코 영도다리를
우리 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리를 건너다 / 박훈하

People cannot prove them by themselves.

I can be proved by you,

I can be the part of the world by place in the memory.

In that case this exhibition makes

Yeong-Do bridge can be exist in our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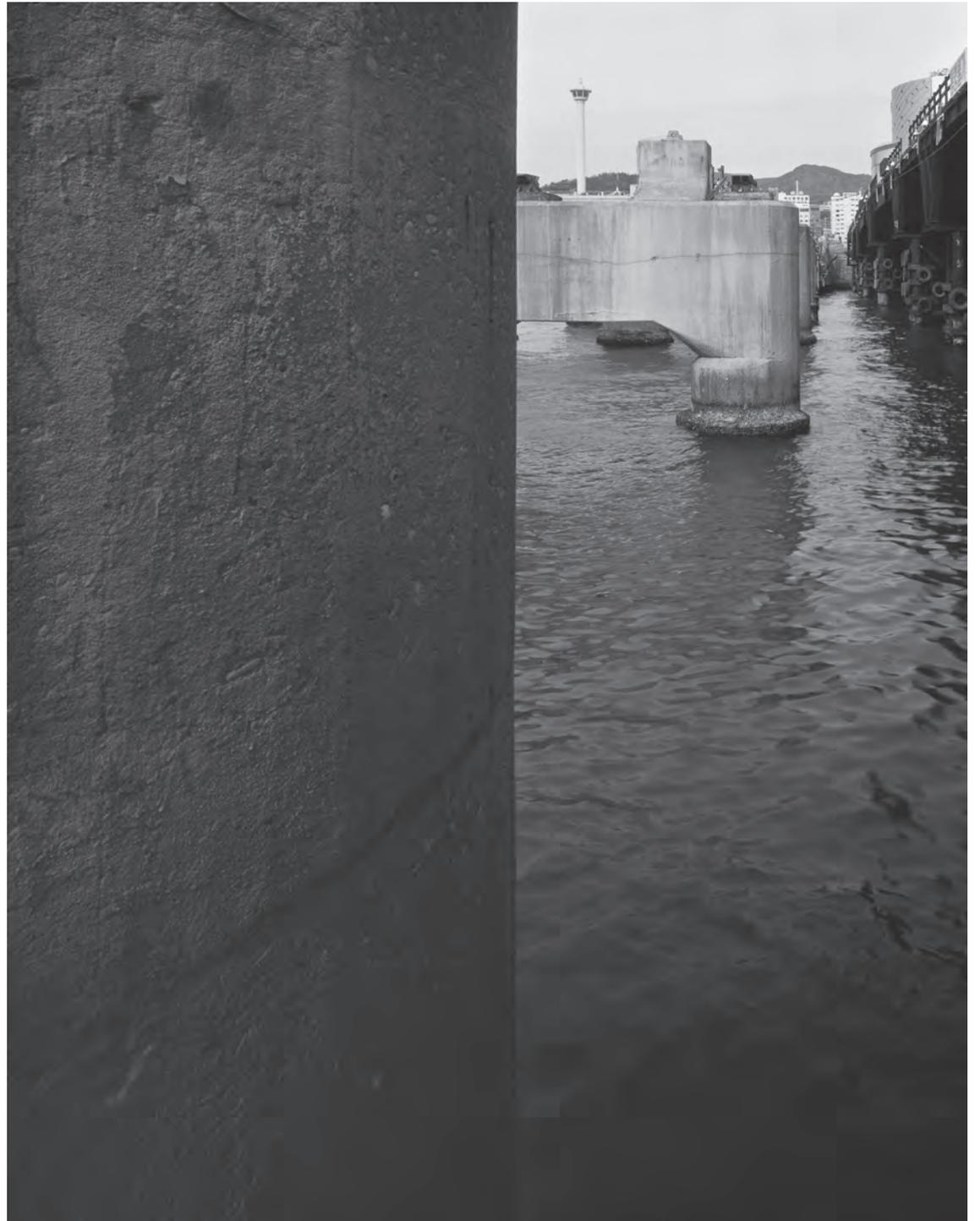
The important thing is not what you see,
but how you see it.

As long as this question is valid,

we will never be able to erase
the Yeongdo bridge from within ourselves.

Cross the Bridge/Park Hoon-Ha

Yeongdo bridge 2011 #04
digitalprint | 140X100cm(1/5 ed)
Busan | 2010





Yeongdo bridge 2010 #01 | digitalprint | 100X240cm(1/5 ed) | Busan | 2010



Yeongdo bridge 2011 #11 | digitalprint | 90X60cm(1/5 ed) | Busan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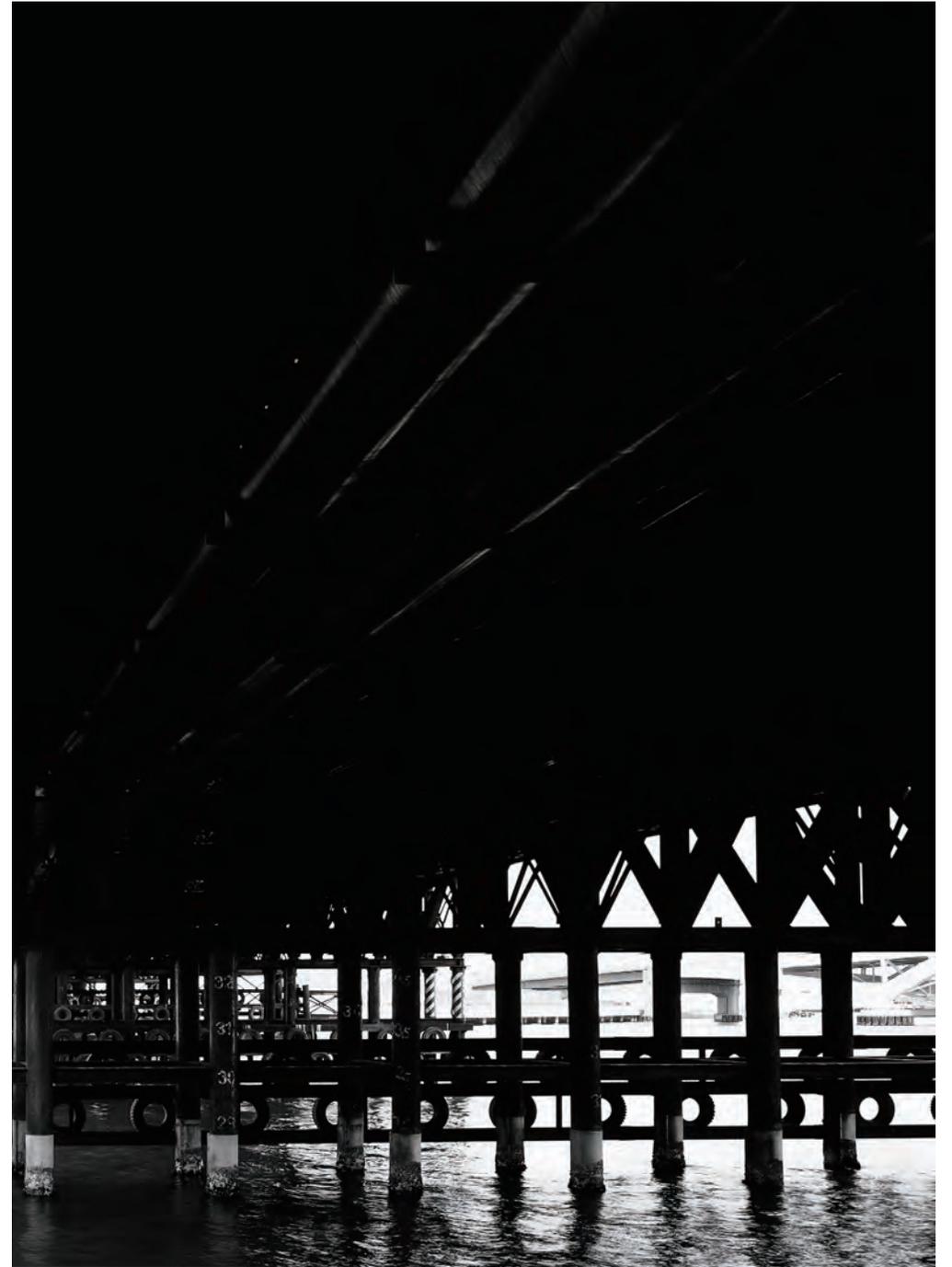




Yeongdo bridge 2010 #05 | digitalprint | 70X100cm(1/5 ed) | Busan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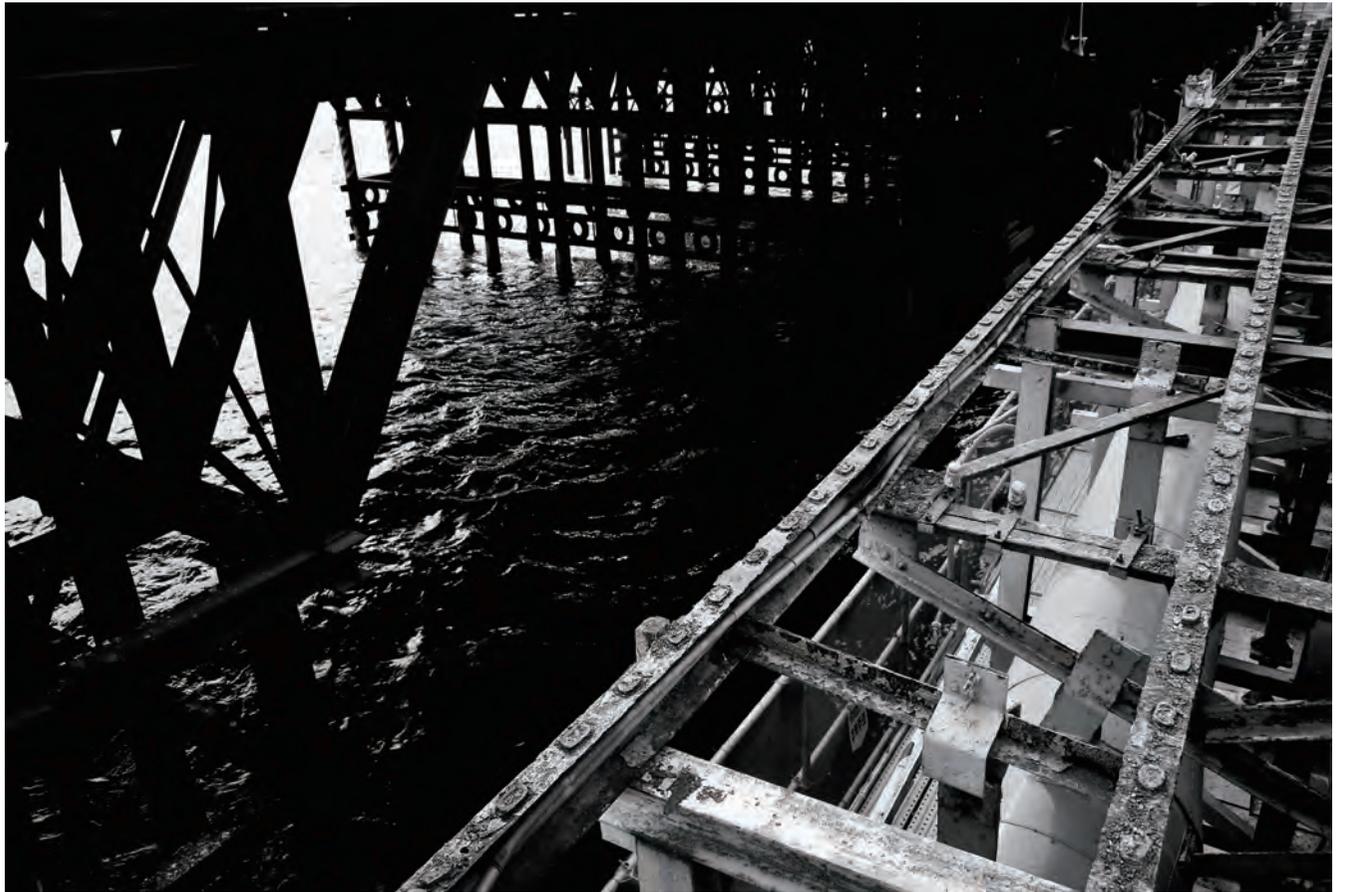


Yeongdo bridge 2011 #03-1 | digitalprint | 120X100cm(1/5 ed) | Busan | 2011



Yeongdo bridge 2011 #02-2 | digitalprint | 120X100cm(1/5 ed) | Busan | 2011







Yeongdo bridge 2011 #01 | digitalprint | 90X60cm(2/5 ed) | Busan | 2011



Yeongdo bridge 2011 #05 | digitalprint | 90X60cm(2/5 ed) | Busan | 2011



Bridgeman #01 | digitalprint | 30X45cm(1/5 ed) | Busan | 2010

Bridgeman #02 | digitalprint | 30X45cm(1/5 ed) | Busan | 2010



Bridgeman #03 | digitalprint | 30X45cm(1/5 ed) | Busan | 2010

Bridgeman #04 | digitalprint | 30X45cm(1/5 ed) | Busan | 2010

Vasculum

낡고 오래된 창틀은 여러 번 덧입힌 페인트에
두께와 넓이가 다르고 여기저기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다.
창틀이 아니라 낡은 그림틀 같다.
그 틀 속에 남아 있는 그림처럼 때로 선명하게
때로 희미하게 반쯤 지워졌거나 말라버린 잎들이 드러난다.
직사각형으로 나뉜 유리창은 실내의 정경을
여러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보게 한다
온전한 것이 분절되어 보이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분열된 장면이 되고 만다.
창 안의 온전한 전체가 사진으로 찍히면서 분절된 것이다.
찍는 이의 시선이 창 안을 분절시킨 것이다
그 분절은 보는 이의 시선이지만
보는 이의 눈으로가 아니라 실재로 보인다는 점이다

장소를 묻다 / 강선학

The old window have difference by it self.
The window have paints mark make it seems like art frame.
Hazy scene left in the window.
Rectangular windows make the view in several pieces.
Rectangular frame divide view into parts.
View is devided by photo.
It is't only divided by sight, also it is divided.

Asking the Place/Kang Seon-Hak



Vasculum #01 | digitalprint | 140X100cm(1/5 ed) | Busan | 2011



Vasculum #02 | digitalprint | 100X60cm(1/5 ed) | Busan | 2011



Vasculum #03 | digitalprint | 140X100cm(1/5 ed) | Busan | 2011



Vasculum #04 | digitalprint | 140X100cm(1/5 ed) | Busan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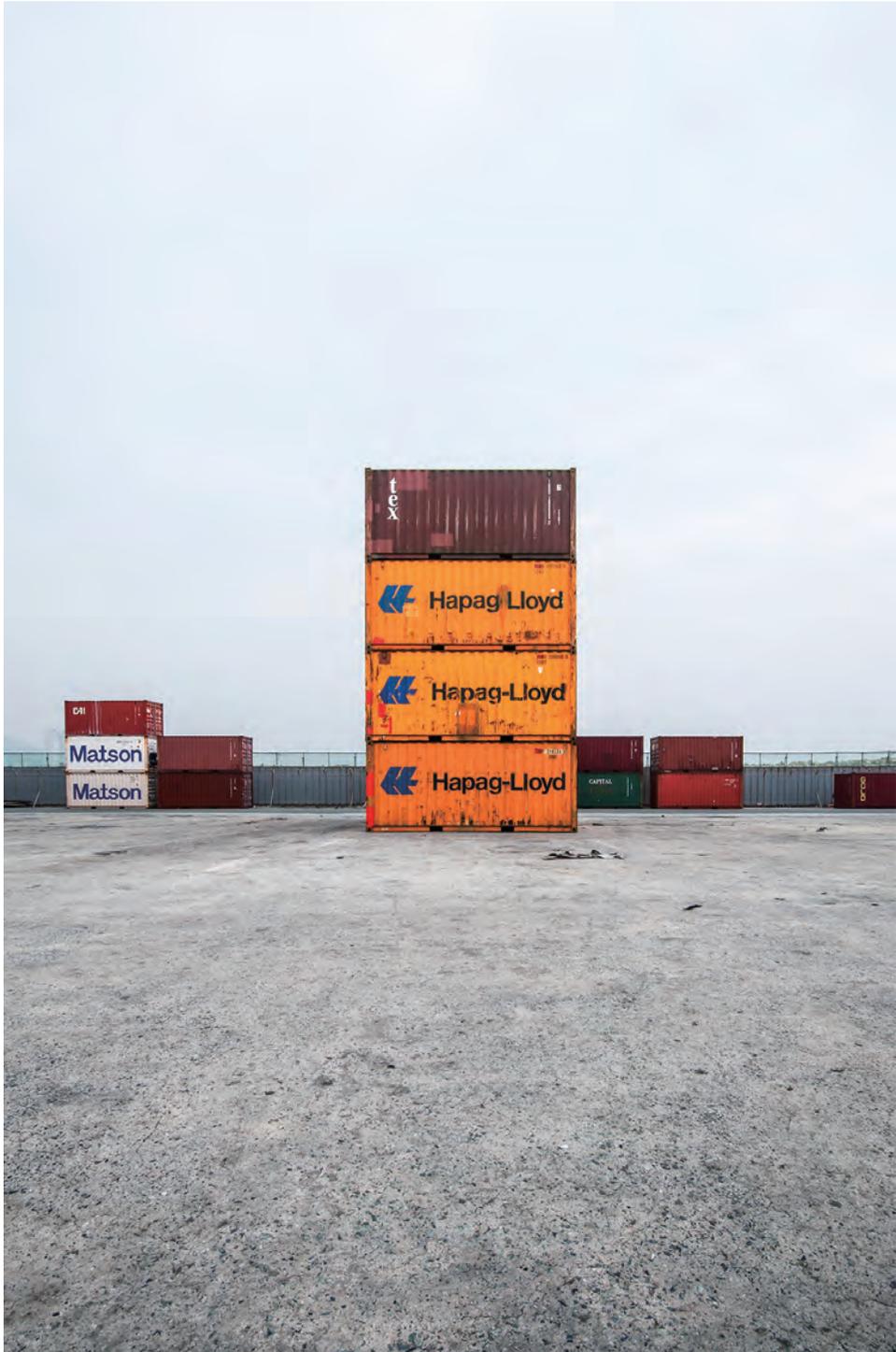
Vasculum #05 | digitalprint | 140X100cm(1/5 ed) | Busan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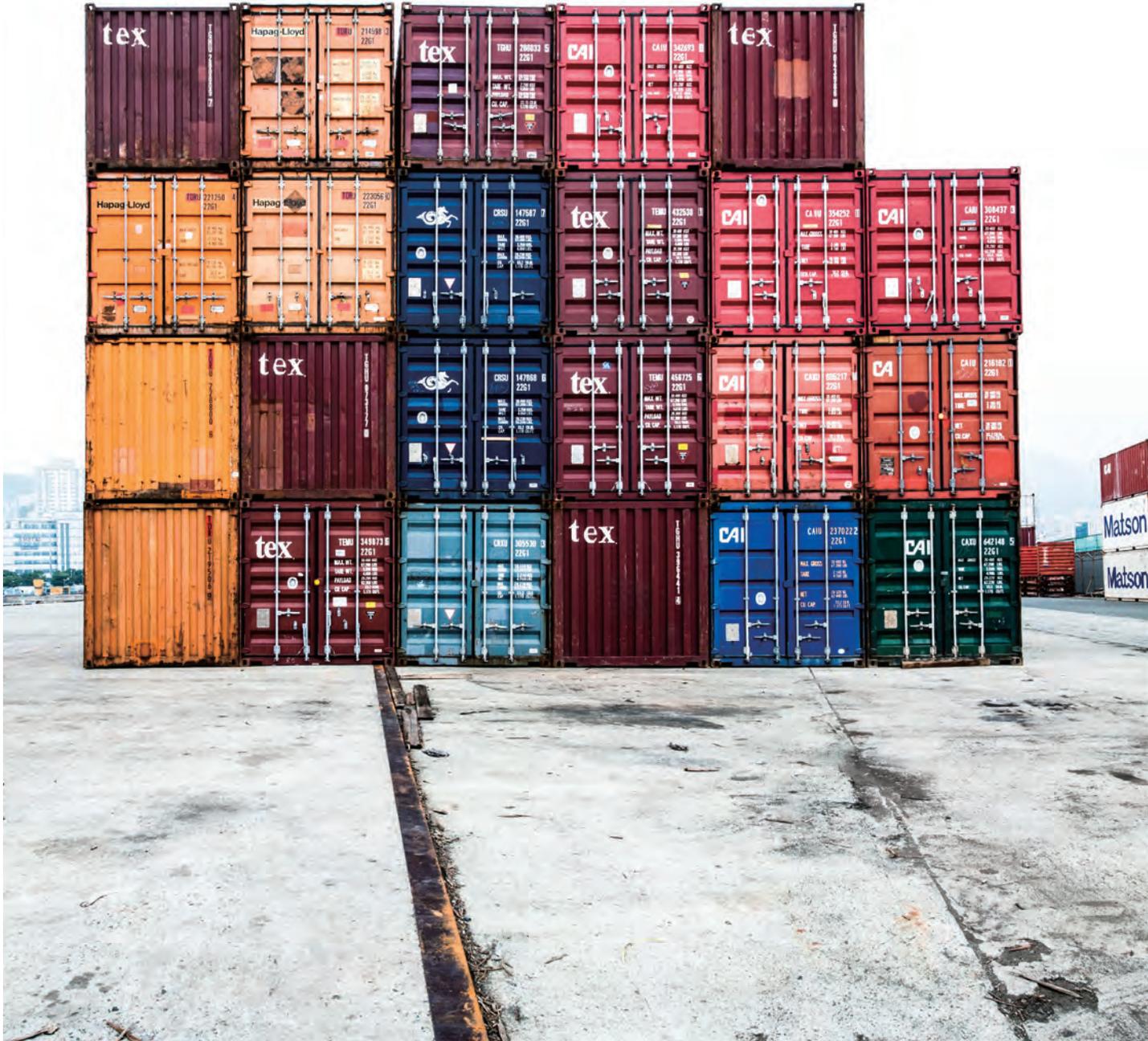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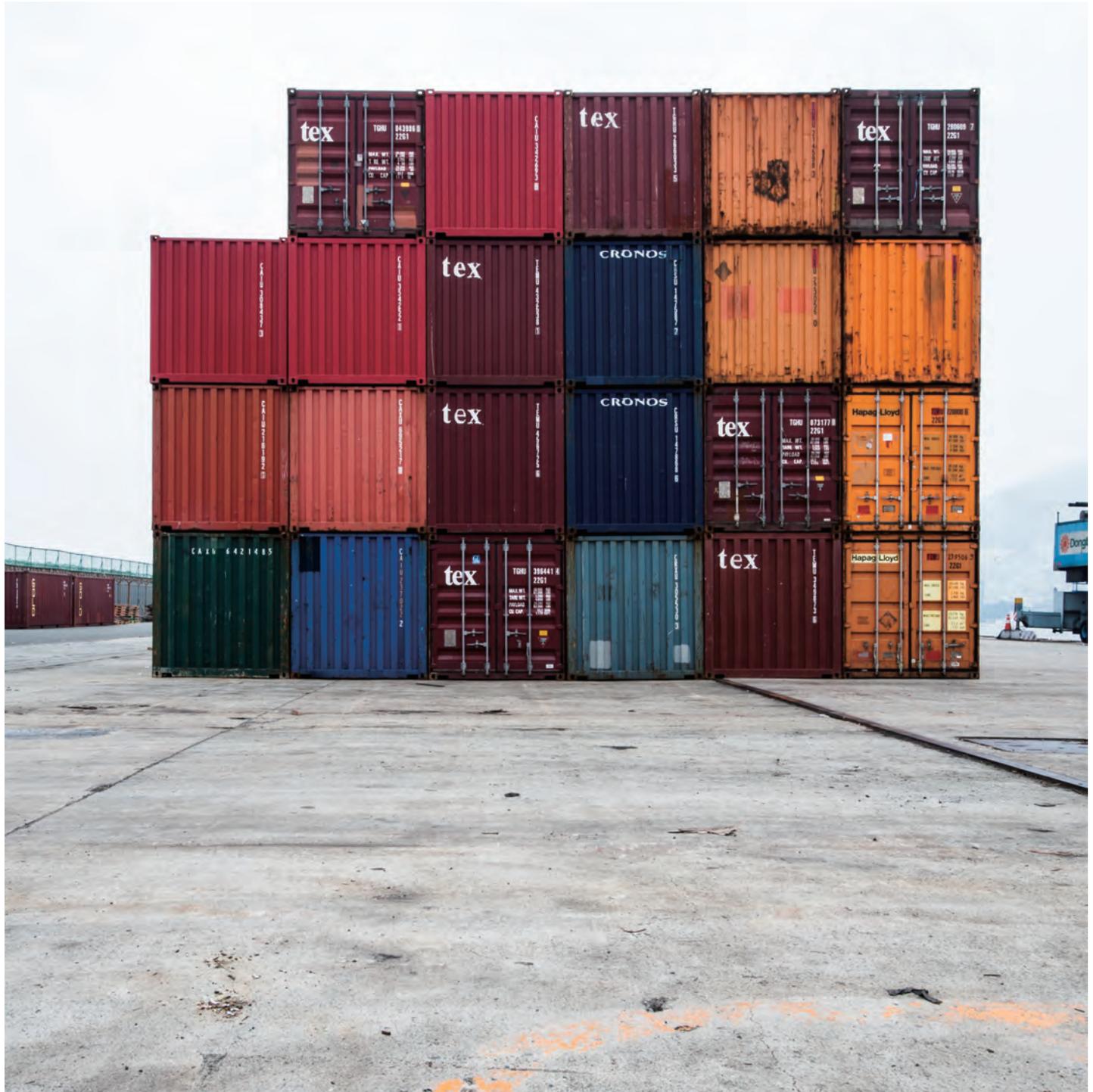


BUSAN North Port





North Port BUSAN Pier 01 #01
Busan | 2015



North Port BUSAN Pier 01 #03
| Busan | 2015



North Port BUSAN Pier 01 #05
Busan | 2014





North Port BUSAN Pier 03 #02 | Busan | 2014





North Port BUSAN Pier 03 #07 | Busan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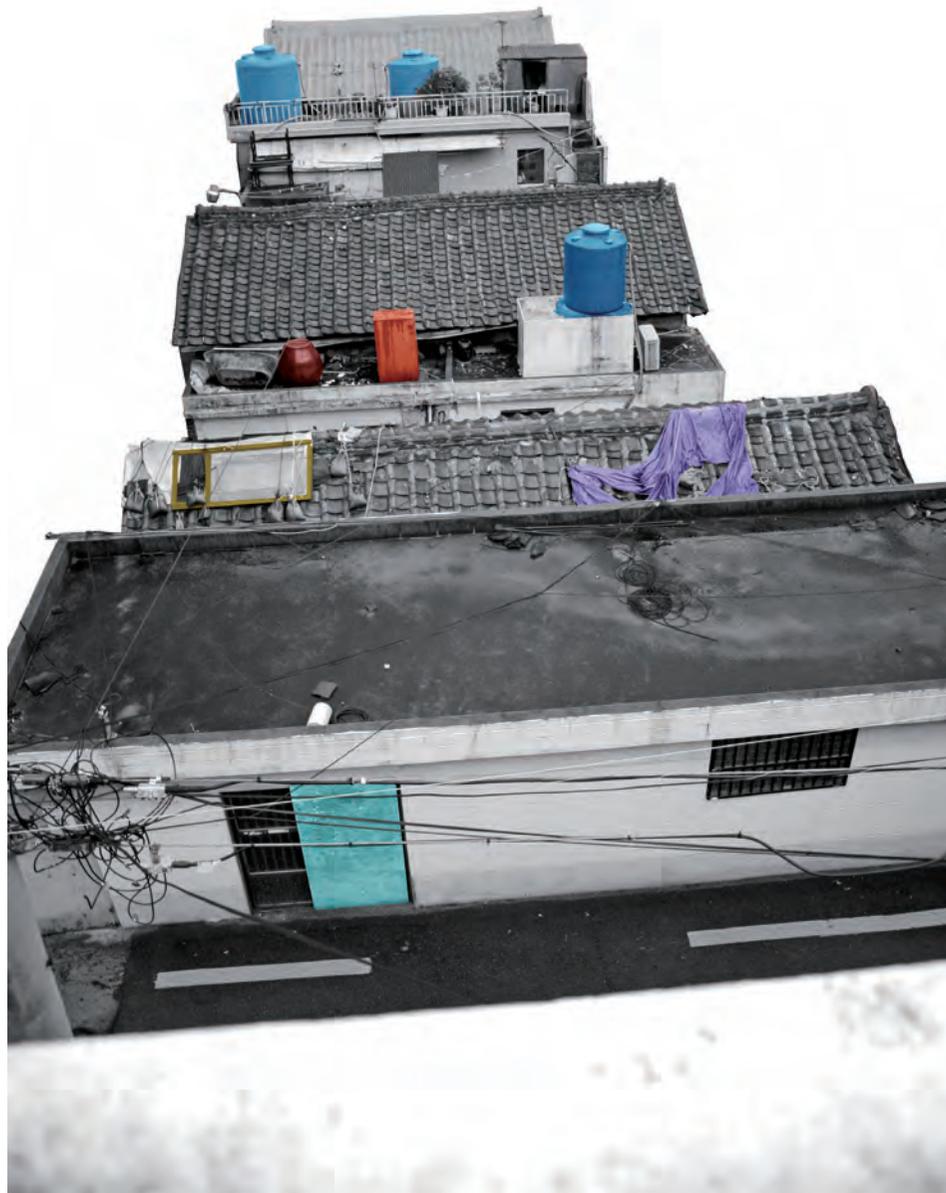
North Port BUSAN Pier 03 #18 | Busan | 2014





North Port BUSAN Pier 03 #15 | Busan | 2014

The Memory of BUSAN



초량동 Choryang-dong | Busan | 2008



수정동 산복도로 Sujeong-dong | Busan | 2012



남부민동 Nambumin-dong | Busan | 1994



수정동 산복도로 Sujeong-dong Sanbok-ro | Busan | 2013



영도 희여울마을 Yeongdo | Busan | 1995



충무동 냉동창고 | Busan | 1996



초량동 Choryang-dong | Busan | 2009



영도 봉래동 Yeongdo | Busan | 2018



영도 흰여울마을 Yeongdo | Busan | 1995



옛 영도다리 Yeongdo Bridge | Busan | 2004



옛 하야리아부대 Hayaria Camp | Busan | 2009



부암동 Buam-dong | Busan | 2008



장전동재개발 Jangjeon-dong | Busan | 2008



영주동 Yeongju-dong | Busan |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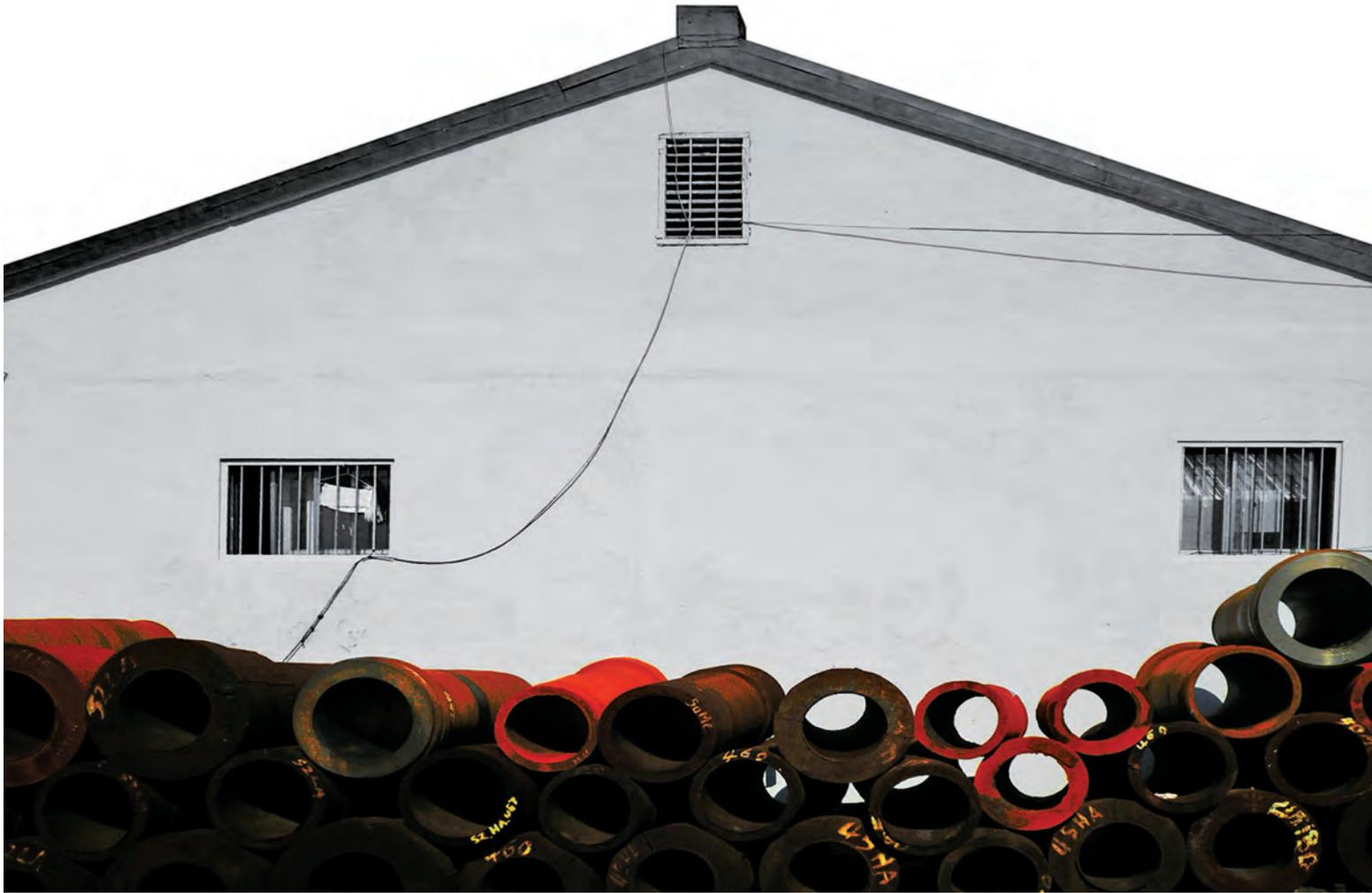
수정동 산복도로 Sujeong-dong Sanbok-ro | Busan | 2012



기장광산마을 Gijang Mine Village | Busan | 2009



아미동미석마을 Amidong Biseok Village | Busan | 2016



영도창고 Yeongdo | Busan | 2009



영도흰여울마을 Yeongdo | Busan | 2008

Spectacle of Busan



Gwanganri #05 | Busan | 2011



Haeundae #01 | Busan | 2011



Busan south port #02 | Busan | 2011



Busan north port #05 | Busan | 2011



Sajik-dong #03 | Busan | 2011



Gwangandaegyo Bridge #01 | Busan | 2011

이인미

- 1967 출생
- 1990 동아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
- 2008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

개인전

- 2017 영도다리를 건너다 / 삼진어묵 갤러리, 부산
- 2016 선회 / 갤러리 자인재노, 서울
- 2012 FRAM:재현의 위치 / 토요타 포토갤러리, 부산
- 2011 다리를 건너다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10 안으로 들여다 봄 / 신세계 센텀시티 원도우갤러리, 부산
- 2009 another frame/ 심여화랑, 서울
- 2008 도시가 있다. 나는 본다/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단체전 및 기획전

- 2019 영남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가야 김해 / 대구 신세계 갤러리, 대구
- 2019 Memories of BUSAN / 신세계 센텀시티 갤러리, 부산
- 2018 site-seeing /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
- 2016 시창반나 포토페스티벌 / 중국
- 2016 극장전 / 송정역 갤러리, 부산
- 2016 반디를 기억하다 /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5 새집에 보따리를 풀다 / 보따리170, 부산
- 2014 무빙트리엔날레-메이드인후쿠오카 / 후쿠오카, 일본
- 2014 부산무빙트리엔날레_메이드인부산 : 마지막 출구 / 부산연안여객터미널, 부산
- 2014 동상이몽 / 예술지구 P, 부산
- 2013 건축도시기행 / ARA art center 아라아트센터, 서울
- 2013 영도다리 다시열리다 / 롯데백화점 갤러리, 부산
- 2013 변주된 풍경들 / 신세계 센텀시티 갤러리, 부산
- 2012 부산비엔날레 - 배움의 정원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2 건축도시기행 / MOA갤러리, 헤이리
- 2011 집을 말하다 / 클레이아크 건축자미미술관, 김해
- 2011 부산, 익숙한도시, 낯선 공간 / 신세계 센텀시티 갤러리, 부산
- 2011 eyewitness /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0 부산국제건축문화제-보존과 창출II 특별기획전, 하야리아, 부산
- 2010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 부산문화회관
- 2010 지역네트워크전 - decentered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0 금련산 갤러리 개관전 I / 금련산 갤러리, 부산
- 2009, 2010 지역네트워크전 - decentered / 아르코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 광주
- 2009 Head / KAF 미술관, 부산
- 2009 뜻 밖의 일상사 / 용두산미술관, 부산

- 2009 지리산문화답사 / 신세계 센텀시티 갤러리, 부산
- 2009 From Busan / 이듬갤러리, 부산
- 2009 지금 우리는 / 신세계 센텀시티 갤러리, 부산
- 2008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들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8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 경성대학교 갤러리, 부산
- 2008 반디구출작전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7 Project U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6 How much? / 아트스페이스 배, 부산
- 2007 How much? / 아트스페이스 배, 부산
- 2007 때를 벌기다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7 신소장품전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7 목욕탕 프로젝트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6 釜山-오래된 섬/ 라마르 갤러리, 서울
- 2006 아름다움에 대하여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5 Digital vs Analog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5故이동석 추모전 MemoLee / 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4 도시, 시간 혹은 부산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1 도시와 미술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0 도시 소통과 관점 / 대안공간 섬, 부산

소장품

- 2007 Anotherframe 01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출판

- 2019 기억하는 도시, 부산 / 비온후
- 2018 <녹숲에서 반짝임으로> / 글 강동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2016 영건營築-조선궁궐을 짓다 / 국립고궁박물관
- 2016 영도다리 / 비온후
- 2013 <건축개념어사전> / 한국건축가협회 / 동녘
- 2007 <나는 도시에 산다> / 글 박훈하, 비온후. * 2008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 2008 <창덕궁> / 글 최종덕, 놀와
- 2007 <한옥에 살어리랏다> / 돌베개
- 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1,2,3> / 글 김봉렬, 돌베개
- 2005 <The Secret Spirit of Korean Architecture> / 글 김봉렬 Saffron Books

부산시 수안동 망미번영로63번길 16
T. 82-51-645-4115 Mobile. 82-10-5033-4115
E-mail : beonwho2@gmail.com
www.beonwho.com

Lee inmi

- 1967 born
- 1990 Donga Universty B.A. in Architecture
- 2008 Busan Universty M.A. in Media space

Solo Exhibition

- 2018 Youngdo Bridge / Samjin Gallery, Busan
- 2016 Gently Turn / zeinxeno.com, Seoul
- 2012 FRAM / Toyota Photo Galley, Busan
- 2011 Youngdo Bridge / Bandee, Busan
- 2010 See inside / Shinsegae Pusan window Gallery, Busan
- 2009 Anotherframe / Simyo Gallery, Seoul
- 2008 I see.... In a city / Openspace Bae, Busan

Group Exhibition

- 2019 Memories of BUSAN / Shinsegae Pusan Gallery, Busan, Korea
- 2018 site-seeing / Busan Metropolitan Art Muesum, Busan,
- 2016 Xishuangbanna Photo Festival / china
- 2016 Tale of Cinma / Songjeong station Gallery, Busan
- 2016 Memories of BANDEE / Openspace Bae, Busan
- 2014 Moving Triennale_Seoan / Seoan , Chaina
- 2015 Housewarming party / Bottaree170, Busan, Korea
- 2014 Moving Triennale_made in Fukuoka / Fukuoka , Japan
- 2014 Moving Triennale_made in Busan : Last Exit/ Busan Port Coast Passenger Terminal,Busan
- 2014 Dongsangimong / Artspace P, Busan, Korea
- 2013 Yougdo Bridge / Lotte department gallery, Busan, Korea
- 2013 playing a variation / Shinsegae Pusan Gallery, Busan, Korea
- 2012 BUSAN biennial - Garden of Learning / Busan Metropolitan Art Muesum, Busan,
- 2012 Architectural photography / MOAGallery, Heyri Artist Valley
- 2011 House /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 2011 Busan my city, my strange place / Shinsegae Pusan Gallery, Busan
- 2010 Eyewitness / Openspace Bae, Busan
- 2009, 2010 Decentered / Arco art center, seoul / Gangju Art Muesum / Busan Art Muesum
- 2009 From Busan / Gallery Idm, Busan
- 2009 Now / Shinsegae Pusan Gallery, Busan

- 2008 Busan Art Now : Since 1928 / Busan Metropolitan Art Muesum, Busan
- 2008 Bandee Rescue Operation / Space Bandee, Busan
- 2007 Project U / Space Bandee, Busan
- 2007 Public Bath Project / Space Bandee, Busan
- 2007 How much? / Openspace Bae, Busan
- 2006 How much? / Openspace Bae, Busan
- 2006 About the Beautiful / Youngdusan Gallery, Busan
- 2005 Digital vs Analog / Space Bandee, Busan
- 2005 Memo Lee / Space Bandee, Busan
- 2004 The City : Mixed Time but no Accumulation / Youngdusan Gallery, Busan
- 2004 Busan / Gallery La Mer, Seoul
- 2001 Urban &Art / Busan Metropolitan Art Museum, Busan
- 2000 City-point of View and Communication / Space Sum, Busan

Main Work for Collection

- 2008 <Anotherframe 01>, Busan Metropolitan Art Museum, Busan

Publication

- 2019 Remembering city, BUSAN / beonwho
- 2018 <Gyeongbuk Industrial Heritage> / Gyeongbuk Economic Promotion Agency
- 2016 Young Gun 營築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2016 Youngdo Bridge / beonwho
- 2013 <Architectural Conceptual Dictionary> / Dongneok
- 2007 <I live in the city> / beonwho
- 2008 <Changdeokgung> / Nulwa
- 2007 <한옥에 살어리랏다> / Dolbegae
- 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1,2,3> / Dolbegae
- 2005 <The Secret Spirit of Korean Architecture> / Saffron Books

Address

16, Mangmibeonyeong-ro 63beon-gil, Suyeong-gu, Busan, Republic of Korea
T. 82-51-645-4115 Mobile. 82-10-5033-4115
E-mail : beonwho2@gmail.com
www.beonwho.com

